

노력하는 한편 不足한 食品에 代替해 가는 方向으로  
의 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生產이 不足한 食品은 그 增產을 위하여  
더 많은 資源이 割當되어 질 수 있도록 食品別生產  
計劃이 再 檢토 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大麥生產  
은 價格을 비롯한 政策條件이 개선되어진다면 그증  
산과 穀類의 自給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 달라진 食品消費樣態에 副應할 수 있  
도록 食品群別長短期需給 계획을 제검토하여 食品의  
數量의 均衡뿐만 아니라 質의 均衡까지도 고려한  
계획 수립과 政策의in 支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食糧문제를 둘러싼 諸與件이 變遷해 가는  
過程에서 食糧 증산문제는 잠시도 그 증산노력을 멈  
춰서는 안될 課題라 하겠다.

長期的 眼目에서 農耕地의 縮少化傾向에 對處할  
開墾 및 扩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農  
村의 不足 노동에 代替할 영농의 기계화의 추진 早  
魃에 對備할 灌排水 시설의擴充과 既存시설의 改補  
修 및 農用資材의 需要急增에 對備한 그 生產供給  
시설의擴充등 長期 증산 對策을 重點的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食糧소비질약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混合穀 放出을 비롯한 無米日의 설정등은 食糧이  
自給될 때 까지는 계속 실시되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로 過剩生產되어질 잠재력이 큰 서류나 맥류 증산에  
의한 不足되어질 食糧에 대한 代替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食品消費 패턴의 유도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어제던 世界食糧전문가들은 앞으로의 食糧사정에  
대비하여 매우 우려의 뜻을 표시하고 「現在의 人口  
증가율로는 世界人口를 먹여 살리려면 世界食糧生產  
이 2倍로 증가되어야 할것」이라고 내다보고 유일한  
단 하나의 實質의in 解決책은 食糧不足國家들이 自  
體의 食糧生產을 늘려 가는 것 밖에 없다고 말한 경  
고는 귀담아 들을만한 충고라고 보며 食糧증산의 문  
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樂觀的in 解解를 버리고 우리는  
는 삶의 小康의in 需給均衡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食糧自給을 위하여 적극성을 보아야  
한 것이다.

## 食糧自給爲한 投融資方向

李 正 漢

(慶尙大 教授).

### 머리말

元來 經濟發展計劃은 公共投資計劃이 그의 重要한  
核心을 이루고 있다.

公共投資야 말로 政府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부문이기 때문이다.

投資計劃은 包括的이고 一貫性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適正性을 갖는 發展計劃으로 부터 誘導되어  
야 한다.

反對로 投資計劃은 이러한 性格을 갖는 發展計劃  
을 뒷받침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事實 Bottleneck 或은 ad foe 事業別 接近法에 依  
한 投資計劃은 發展計劃이 要請하고 있는 包括性 一  
貫性 그리고 適正性이란 基準을 반드시 充足하고 있  
지 못하고 따라서 非效率의이고 或은 施行錯誤의  
investment計劃으로 轉落될 可能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비추어 볼 때 主題의 課題는 너무  
나 范大하다고 하겠다.

첫째로 包括的이고 一致牲이 있으며 適正性을 갖  
는 그러한 農業發展計劃模型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  
제로 있지 않기 때문이요 둘째로 비록 이런 模型  
이 주제 있다고 할지라도 實踐性이 있는 그러한 投  
資計劃을 充分히 檢討할 수 있기에는 時間的制約  
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本稿는 目的하는바 「農業發展이나 食糧  
增產乃至는 食糧自給을 達成할 수 있는 投資方向을  
提示하는데 原則的으로 끌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實際에 關して 食糧問題만이 우리의 農業部門에

주워진 唯一한 問題라고 그릇 認識해서는 絶對로 아니된다. 食糧增產이나 自給은 어디까지나 農業發展의 한 結果로서 이룩된다는 點 그리고 食糧增產, 그 自體가 農業發展의 다른 目標(例: 農業所得水準)와 반드시 相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點을 깊히 認識해야 하겠다.

### 投資方向의 模索과 投資計劃樹立 基準

우리는 하나의 政策이나 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그의 波及의 効果나 他分野와의 相互作用을 考慮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하나의 政策目標를 達成하기 為해서는 다른 政策目標와는 社會利益을 牺牲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工業化와 公害, 生產者와 消費者, 食糧增產과 農業所得穀物과 非穀物生產等間에는 相克關係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相克關係는 適切히 調節되어야 한다. 하나의 顯案問題를 生覺해 보자. 即 改正 農地 保存法案 말이다. 이 案에 의하면 경사도 15度, 以下 田畠에는 全部 食糧作物穀類의 生產을 強制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菜蔬, 果實, 油脂作物, 生絲, 煙草 等의 非食糧作物의相當한 量을 輸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果然 이들을 輸入하는 것 或은 穀物을 代身 輸入하는 例 中 어느 것이 더 效率이 높을 것인가?

即 國際收支面에서 效率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째든 經濟變量 相互間에 介在한 複雜한 交互作用을 미리 把握하여 이들이 充分히 考慮된 政策이 計劃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連關係이 考慮되어 形成된 計劃을 우리는 抱括的(comprehensive) 計劃이라 한다. 反面에 生產, 消費, 價格, 榮養, 可用資源, 投資 等等이 서로 一定한 均衡을 이루어야 하겠다. 一定한 量의 增產을 為해서는 一定한 水準의 價格, 一定한 量의 農業資材의 供給, 一定한 量의 投資가 要求되고 있다. 이러한 要求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政府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一定한 均衡을反映하고 있는 計劃을 우리는 一致性或是一貫性이 있는 計劃(consistent)이라고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計劃은 우리가 갖고 있는 人的 物的 資源 保有量, 貯蓄, 借款能力 等과 서로 調和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들에 비추어 보아 가장 適正한 것이라야 하겠다. 이를 우리는 適正性(optimal)한 計劃이라고 한다.

이러한 性格을 갖는 計劃은 適切한 經濟模型으로 부터 誘導되어야 한다.

#### 1) 價值觀 設定

當代의 英傑 政治家인 英國의 치칠鄉은 「英國의 幼少年에게 牛乳를 더 먹기는 投資보다도 더 投資効率이 높은 投者는 없다」고 看破했다. 이는 食糧問題一國民體位向上一國力培養이란 等式 関係가 成立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等式 関係는 計劃이나 投資는 國家百年 大劃을 為한 長期性을 되고 있음을 雄辯해 주고 있다.

食生活이 習慣性이란 事實은 앞에서 指摘했다. 短期의 食糧問題解決을 為한 誤導된 政策은 이 民族의 將來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事實을 警告했다. 事實食生活은 政策이나 與件變動에 따라 徐徐히 變動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까 언제까지나 主食은 쌀이或是 밀 및 밀가루가 製品이 아니면 아니되겠다는 法은 絶對로 없다.

따라서 첫째로 消費者에게 이러한 適應ability을 培養해 주는 同時에 둘째로 生產者나 消費者的 決意與件의 變動을 우리 民族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誘導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總 카로리는勿論이지만 灰水化物以外의 榮養素의 供給 摄取도 需給計劃面에서 重要視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主張이고 이러한 榮養素別 供給計劃이 없는 需給計劃은 不合理한 計劃임에 틀림없겠다.

쌀이나 在來의 食生活 패턴을 하루 아침에 一掃하는 것은 決코 아니며 장차 이로써 쌀 主軸 消費 패턴을 完全代替하는 것도 아니다. 쌀 代身에 고구마를 보다 더 많이 栽培하여 一部는 直接食糧으로, 一部는 飼料로, 나머지는 加工用으로 함으로써 輸入糧穀物量을 줄이자는 것이고 보리 代身 감자를 보다 더 많이 生產해서 米麥의 代用部分代替을 하자는

것이다.

## 2) 研究와 開發投資

現在의 技術水準과 價格構造를 前提로 할 때 고구마가 飼料化될 수 있는 價值는 稀薄하다. 그러나 우리는 고구마가 다른 染養素와 適當히 結合되었을 때 大家畜은勿論 小家畜의 飼料(例컨대 절간 고구마를 분쇄했을 때 或 다른 方法으로)로도 利用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는 것은 分明한 事實이다. 그러니까 고구마 自體의 單位面積當 收量이 될 수 있는 技術開發如何에 따라서 實用的 飼料화의 餘地가 決定될 것이다. 要컨대 要點은 다른 作物은勿論 이거니와 이려한 經葉根을 利用하는 作物의 增收技術을 開發(育種과 農培)을 為한 果敢한 投資가 必要하다. 現在 이려한 作物을 為해서 研究投資를 하고 있음은 事實이다. 그러나 所期의 成果를 얻기에는 너무나 微弱한 投資인 것 같다. 우리는 Critical minimum effort가 必要하고 어폐한 big push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技術을 開發하는데는 mult-disciplinary 接近法이 必要하다. 包括性, 一貫性, 適正性을 勘案한 接近法 말이다. 갑자나 고구마 보다 더 많이 食用化하고, 고구마를 더 많이 飼料化한 뿐만 아니라 蛋白質이나 脂肪, 野菜, 實果 等을 더 많이 우리의 食生活에 導入함으로써 直接消費하는 穀類의 量을 즐이기 為해서 增產技術開發以外에도 많은 問題點이 없지 않다.

첫째로 이려한 比較的 새로운 食品이 食性에 알맞게 加工이나 調理하는 問題, 둘째는 고구마나 갑자기의 저장問題, 세째로 이려한 새로운 食品의 加工調理에 必要한 油類供給問題, 네째로 고구마, 其他 새로운 飼料作物을 飼料로 轉換하는데 必要한 諸數 技術問題 等等이 그것이고 이려한 諸問題解决을 為해서는 莫大한 研究開發을 為한 投資가 必要함을 말할 것도 없다.

## 3) 教育研究 投資

農業生產에 關하는 限한 先進諸國에 있어서는 品種改良에 投資했을 때 投資効率이相當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現在 研究機關을 그대로 두고 가령 事業費를大幅增投했을

때 果然 外國에서 일은 만큼한 成果를 얻을 것으로期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農業成長을 이러한 研究機關에 크게期待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以外의 道理가 別로 없으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研究機關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만큼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그 原因은 어디에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첫째로 優秀한 研究員을充分히 確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一定한 水準以上의 成果를 얻기 為해充分한 施設과 研究費가 주워져 있지 않다는 것, 세째로 價值觀, 研究姿勢, 研究家와 利用者間의 對話와 研究結果의 利用等에 未洽한 點이 없지 않다는 것 있는데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첫째로 既存世代中 優秀한 研究員을誘置하고 뿐만 아니라 보다 優秀人材를 이려한 研究分野에로 就業하겠음 教育을 받도록 하기 為해서 公務員報酬體制를大幅改正하여 그야말로 研究員이 全心全力 研究에 힘쓸 수 있는 만큼의充分한 報酬가 주어져야 한다. 그 것만으로는 不足하다. 即 더욱 研究에의 利己心을 자극하기 為해서 研究의 成果에 따라 비록 係長, 課長, 局長에로 昇進은 못하더라도 報酬는 增加하는 體制가 確立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優秀한 後繼者 第二世代의 確保를 為하여 果敢한 教育投資가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大學育成策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海外留學 그리고 既成世代의 再教育까지도 包含한다.

## 4) 社會經濟的 研究 投資

自然的研究의 方向의 提示하고 導入 多樣성을 檢討하며 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社會科學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研究를 為한 投資도 새로운 技術開發을 為한 그것 못지 않으니 만큼, 重要하고 生產의 一環의 作用을 強調한다.

## 5) 穀物需要 代替를 為한 投資

우리는 經葉根을 利用하는 作物의 增收技術과 이를 食品化하는데 必要한 技術開發 投資를 力說했다. 하지만 畜產物을 生產하는데 飼料効率은 比較的 낮다. 內水面 養魚의 경우 飼料効率은 比較的 높은 것으로 알려있다. (케트피시는 1對1) 또 蛋白質 供給面에서 魚具類와 肉類와의 代替關係는相當히 큰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相對的으로 비싼 肉類로 써 動物性蛋白質를 全部供合할 것이 아니라 未開發領域인 內水面은 勿論 比較의 制約性이 적은 海面을 充分히 開發活用하여 보다 많은 蛋白質을 供給으로 하게끔 하는 投資와 計劃이 長短期的 어느 面으로나 크게 바람직 할 것이다.

## 要 約

食糧增產率이나 農業成長率은 結局 技術進步의 程度에 依存하고 이 技術進步는 公共投資의 函數라고 하겠다. 이 말은 어떠한 類의 投資도 곧 技術進步나 或은 所期의 政策目標를 達成할 수 있다고 主張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 이를테면 地下水開發 그리고 照農一를 為한 投資는 實効를 거두지 못했다는過去의 經驗을 염연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事例는 비록 이두例에 局限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投資가 이루어지기 以前에 技術的 社會經濟的研究와 妥當性 分析이 先行되어야 한다.

個別投資는 相互 有機性을 갖고 서로 補充, 補完或은 支持하면서 가장 効率의인 그러한 計劃이어야 하겠다. 이러한 計劃을 包括性, 一致性 그리고 適正性을 갖는 計劃이라 했다. 公共投資와 技術進步와의 關係는 連續的函數關係 일수도 있고 非連續의 경우도 있겠다. 이를테면 하나의 Dam을 建設하는 데 있어서 一定한 量以上的 投資없이는 Dam이 가저울 수 있는 效果를 우리는 享有할 수 없다.

一定한 限度以上の 投資없이는 充分한 效果를 얻을 수 없을 때 所要되는 投資를 우리는 Minimum Critical effort라 했다. 이러한 理致는 技術開發에도 그대로 適用된다. 또 經濟變量은 相互聯關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特殊한 部門의 投資는 結果적으로 充分한 效果를 가져 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聯關性이 있는 部間에 同時に 集中投資가 必要할 것이다. 이를테면 研究員의 大幅의 處遇改善 없는 研究事業費의 増加, 教育投資는 研究員의 處遇改善 施設의 優秀な 研究原의 多量確保等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充分한 技術開發을 生產해내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全部 同時に 增投되어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는 우리는 農事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보다 더 強調했다. 現代의 科學的 智識을 充分히 活用했을 때 綠色革命을 創造할 수 있다는 經驗에 基礎를 두고 있다. 또 餘他의 政策手段의 效果는 보다 더 限定되어 있기 때문이요 이것이야말로 政府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어차피 食糧政策은 長期的 眼目에서 長期性 된 政策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構體的으로는 徑葉根을 利用하는 作物에 對한 新技術開發을 為해서 더욱 많은 投資를 提議했다.

이는 우리의 自然的, 社會的, 經濟的, 時代의 要求에 基礎를 두고 있다. 또 生產政策과 消費政策은 當然히 有機性을 갖어야 한다. 우리의 在來의 消費패턴을 依據한 새로운 作物을 主軸으로 하는 消費構造로 徐徐히 代替하도록 하는 同時に 築養均衡을 考慮한 食糧需給計劃이 確立되어야 하겠다. 아니 反對로 이러한 食糧需給計劃에 依하여 生產政策과 消費政策이 樹立되어야 하겠다.

或은 이러한 需給計劃은 生產能力에 따라서 調整될 수도 있겠다.

草食性 家畜의 優位性을 強調했다기보다는 亦是 飼料의 築養均衡이 맞게끔 徑葉根作物을 主軸으로 하는 飼料政策으로 轉換할 것을 催求했다. 徑葉根 作物을 食品化 or은 飼料化하는데 수반하는 各種 各級의 研究에 果敢히 投資할 것을 또한 同時に 提議했을 뿐만 아니라 賯藏流通 等에 關한 研究 投資도 없어서 아니될 것을 示唆했다.

나아가서 飼料効率이 比較的 낮은 家畜生産物로부터 오는 蛋白質에만 依存할것이 아니라 飼料効率이 高은 內水面 養殖開發을 為한 研究 投資는 勿論 近海 및 遠洋漁業開發을 為한 그것도 催求했다. 그러니까 魚貝類에 蛋白質 供給을 보다 더 依存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公害汚染으로 부터 解放된 食品이야 말로 増產本來의 目的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임으로 公害對策을 為한 研究 投資가 크게 重要視되어야 하겠음을 強調했다.